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역사인물 이야기

역사 속 개인의 삶 통해 한 시대사 복원

역사인물을 통해 시대를 비춰보는 형식이 역사교양서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시대와 불화하거나 혹은 시대를 주도하면서 역사를 만들어온 인물에 대한 관심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 다산·율곡 등 비교적 많은 저작을 남긴 인물들에 한정된 실증적 연구에 그쳤다.

최근에는 역사 속의 개인이 처한 외적·내적 상황을 종합하는 드라마틱한 구성으로 시대를 생동감 있게 복원한 책들이 나와 독자들의 관심을 끈다. 색다른 시각의 역사교양서를 지향하는 젊은 출판사들이 그 선두로 나섰는데, '근엄한' 역사서의 산실로만 여겨졌던 출판사에서도 진지한 인물연구서를 잇따라 내놓았다.

정확성 높은 전문가의 저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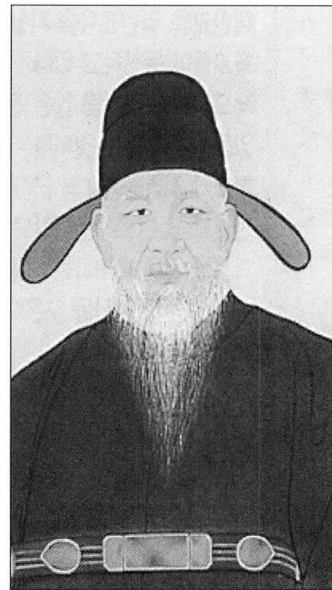
지금까지 역사학·국문학 등 국학 연구서를 꾸준히 펴내온 일지사는 <한국 명인의 삶과 사상>이라는 시리즈물의 첫권으로 《화담 서경덕》(이종호)을 내왔다. 기묘사화와 을사사화 등으로 혼탁했던 16세기 초·중반을 산 서경덕의 삶과 사상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는 이 책은 황진이와의 일화로 잘 알려진 화담을 철학자와 경제사상가, 또 정치가·교육가의 측면에서 다뤘다.

특히 적은 자료 때문에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경제사가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켰는데, 묘지 확대가 서민들의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상소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화담의 소박한 토지경제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지사의 편집장 김유진씨는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역사교양서를 만들겠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는데, 같은 저자가 《조광조》를 후속작품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국사는 물론 동·서양사를 아우른 역사서를 주로 발간해 온 신서원 역시 《실학자 유득공의 고대사 인식》(정진헌)을 펴냈다. 이 책은 정치뿐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변혁기로 기록된 정조시대의 탁월한 학자였던 유득공을 통해 당대를 재해석했다. '인물은 시대의 소산'이라는 저자는 "어느 한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시대의 인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중조 할아버지가 서자였지만 빼어난 실력

역사인물을 통해 시대를 비춰보는 역사인물서들이 그 드라마틱한 삶과 함께 독자들의 관심을 끈다. 혼란한 시대에 방향을 잡아줄 인물에 대한 갈망이 이같은 책들의 출간에 일조한다. 역사의 대중화와 전문성·정확성 사이에 평형감각을 지닌 책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왼쪽부터 태조 이성계, 정도전, 영조. (인물화로 보는 조선시대 우리옷) 중에서.

때문에 중용된 유득공의 개인사는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당시 새로운 학문이었다던 북학파의 영향은 발해를 우리 역사로 끌어들이 유득공의 독특한 고대사 인식을 낳았다. 신서원에서는 이 책에 이어 《조려 이유태의 향약과 정훈》(이해준)을 출간한다. 효종조에 북벌계획에 참여하고, 향약에 의한 양전의 실시와 사창의 설치를 주장한 이유태도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대표인물로 꼽힐만 하다.

이들 책은 전문가의 저술로 정확성을 높였지만 반면에 한문으로 된 사료를 직접 인용하거나 당시의 고유명사를 그대로 쓰는 등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는 너무 전문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런 점에서 푸른역사와 지성사에서 각각 펴낸 《정도전을 위한 변명》(조유식), 《조선건국기 재상열전》(김진섭)은 어렵지 않은 서술로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놓치지 않으면서 역사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이들은 사학자의 엄격성과는 다른 입장에서 사료를 선택하고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 개인의 삶과 역사를 속도감 있는 문체에 담아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하게 보여준다.

전문성과 대중적 흥미 동시에 충족

역사인물에 대한 관심은 '용의 눈물' 같은 시대극이 인기를 끌면서 출판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지만, 그 저변에는 지금

의 사회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얼마전 한 일간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IMF 시대, 역사인물을 찾아라'에 보낸 독자들의 호응이 말해주듯 혼란스러운 시대에 방향을 잡아줄 모델인물을 갈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출판 흐름에 일조한 것. 또 80년대 사회적인 변화를 겪은 젊은 필자들이 많이 등장해 이런 분위기를 거들었다.

대중적인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강단 사학자들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한 《정도전을 위한 변명》 후 《영조와 정조의 나라》를 내놓은 푸른역사는 "역사인물 탐구는 충분히 가치 있는 기획 아이템"이라는 입장이다. 대중적인 흥미만에도, 또 경직된 실증사학만에도 치우치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영조와 정조의 나라》 외에도 송시열을 다룬 《왕이 되고자 했던 신하》(이덕일), 《사도세자의 고백》, 《조선의 왕비》(이상 가제) 등을 준비하고 있다.

푸른역사의 박혜숙씨는 "좋은 필자찾기와 자료의 한계 때문에 역사 속의 인물을 발굴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하지만 출판이 역사연구의 성과를 대중적으로 수용하는데 '역사인물' 만큼 좋은 소재는 드물다는 생각이다.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마다 애정을 갖고 있는 역사인물이 있다. 이들을 현실로 끌어내 독자와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출판사의 몫"이라는 게 역사인물을 다루는 출판사들의 한결

같은 말이다.

시대상을 반영하는 하나의 그룹으로 범주화해 책으로 묶는 방법은 자료가 부족한 역사인물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실패한 개혁의 역사》(역사문제연구회 엮음, 역사비평사)가 신돈·조광조·정조·대원군 등 개혁적 인물들이 활동했던 시기의 역사적 공통성을 찾으려 했던 것이나 최제우/김옥균, 신채호/이광수, 염상섭/김팔봉처럼 같은 시기를 살았지만 상반된 평가를 받았던 근대 지식인들의 초상을 대립항이라는 틀에 담아 살핀 《근대 한국의 지식인과 그 초상》(최영, 문학과지성사)은 이같은 예에 속한다. 혜안에서 근대 출간한 《조선국왕이야기》(임용한) 역시 한 왕조의 기틀을 잡은 초대 왕들의 개인적 성품과 그들에게 지워진 시대적 역할을 살핀 책이다.

사학자 김기협씨는 "문제는 거리좁히기"라고 말한다. 역사의 대중화에만 관심을 갖는 이들은 대중이 무엇에 흥미를 느낄까만을 고민하고, 학계는 자신의 논문에 사료적 근거가 탄탄한가만을 살핀다면, 정확한 내용으로 독자들을 엮신여기지 않으면서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역사대중서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 이현주 기자